



광주천 교량 새단장 광주천 다리 가운데 도심에 위치한 남광교와 학강교, 양림교, 금교, 서석교 등 5곳에 대한 경관 개선공사가 마무리돼 야간 조영 시험 가동에 들어갔다. '학의 날개'로 환하게 피어오르는 자연의 '빛'을 형상화한 학강교(앞쪽)와 '고싸움으로 화합과 풍년, 평안을 기원하는 수굿치는 빛'을 주제로 새 단장한 양림교 야경.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시내버스 '원거리 가스 충전' 곤욕

### 광주시, 도산동 '이동식 충전소' 대책없이 폐쇄 서구까지 하루 20분 공차 운행...운전자들 불편

광주시가 정부의 이동식 가스충전소 폐쇄 방침에 맞춰 이를 대체할 고정식 가스충전소를 미리 확보하지 못해 운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당초 고시를 통해 지난달 30일 이동식 가스충전소 폐지를 결정했으나 뒤늦게 운영기간 연장을 고시, 정책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규칙 부칙 개정으로 지난달 30일 폐업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은 이동식 충전소의 운영기간을 6월3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말 이동식 충전소가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같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도산동 이동식 가스충전소를 이용하던 송정29번, 송정98번, 송암73번 등 45대의 시내버스가 이를 켜 가스 충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버스는 도산동 충전소가 폐지

되자 왕복 13km 거리에 있는 서구 벽진동 충전소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평균 20여분의 시간을 허비하는 데다 연료낭비까지 감수하고 있다. 또 도산동 충전소를 대체해 평동 산단 인근에 들어설 고정식 충전소도 10월 중순 완공될 것으로 보여 3개월 동안 공차운행으로 1천500여만원의 예산이 낭비될 처지에 놓였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버스 운전원들은 광주시가 사전에 이동식 충전소가 폐쇄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버스운전원은 "버스 운행시간에 쫓기는 상황에서 충전을 위해 짧은 거리를 운행해야 하는

데다 연료낭비까지 감수하고 있다"며 "광주시가 미연에 대해 충전소 건립을 서둘렀으면 이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뒤늦게 지난 1일 이동식 충전소 운영기간 연장을 고시했지만 이미 정부의 폐쇄 방침에 맞춰 도산동 충전소를 폐지하고 광양에 고정식 충전소를 신설할 방침이기 때문.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사전에 대해 충전소 건립을 추진했으나 건립 주체가 사실상 민간 기업인 한 국해양도시가스인데다 부지 구입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된 탓에 건립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민선 4기 전반기 결산과 과제

송광운 광주 북구청장

# '기업하기 좋은 북구' 기틀 "문화 숨쉬는 선진區 건설"

광주시 북구는 민선 4기 전반기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를 구정과제로 삼고 지역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0건과 유치·지원사업 16건 등 모두 66건의 공약사업 중 ▲25건은 정상완료 ▲23건은 정상 추진중에 있다. 하지만 북구종합문화센터 건립과 31사단 이전계획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담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북구는 특히 기업지원위원회 구성과 지원조례 제정, 기업사랑 행정지원센터 개소,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등을 통해 '기업사랑 운동'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수출실적 및 기업체 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자치단체'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 남도항도 음식박물관을 비롯한 호남문화자료전시관, 테마별 역사문화 관광벨트, 비엔날레 문화지구 및 중의 문화예술벨트 조성사업을 통해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문화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도시로 선정돼 1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선진 자치구의 기틀을 확실히 다져

왔다. 지난 4년 연속 지방재정운용 및 지방행정혁신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을 비롯 국가생산성 혁신대회 대상, 전국기초단체 매니 페스토 우수상 등 73회의 각종 수상과 함께 5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는 등 행정혁신의 선두기관으로서 면모를 과시했다. 송광운 청장은 현재 자체사업

북구는 앞으로 지역의 발전 잠재력과 문화적 특성을 살려 '다함께 잘사는 북구, 누구나 행복한 북구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 ▲북구아동복지관 건립 ▲(재)광주북구장학회 육성지원 ▲비엔날레 타운 조성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민선 4기 전반기는 자치구 단위의 경제 패러다임으로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축했다"며 "남은 2년을 이를 발판으로 경제성장을 구체화하여 다함께 잘사는 북구를 건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현 기자 galee@

## "가정의 자발적 에너지 절감 이산화탄소 줄이자"

# 광주 '탄소은행' 참여 열기 뜨겁다

### 한달 반만에 1만8천여가구 신청

가정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을 통해 감축된 이산화탄소량을 포인트로 환산해 참여 가정에 탄소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탄소은행'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열기가 뜨겁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말까지 '탄소은행' 가입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1만8천516가구가 참여했다. 이는 당초 목표인 1만가구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특히 북구에서는 목표인 3천500세대의 배가 넘는 7천700세대가 참여했고, 광산구 신창동 호반베르디움 아파트의 경우 312가구 전 세대가 신청했다.

시는 탄소은행 참여자에게 오는 14일부터 전국 최초로 탄소그린(체크)카드를 광주은행 전 지점에서 발행해줄 계획이다.

'탄소그린카드'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를 방지하고 카드를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온실가스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시는 또 탄소은행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고 기후변화대응 포털사이트를 구축,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 신청된 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 이어 이를 시내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산시키고, 적용 부문도 가정의 전기와 도시가스 등 에너지 부문에서 수도와 자가용 차량 등 수송 부문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시민 참여 열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시청과 구청 환경관련 부서, 자치센터, 광주은행 전 지점에 탄소은행 참여 신청서를 비치하고 신청을 받기로 했다. 문의는 광주시 환경정책과(062-613-4130~4).

/정승희기자 who@kwangju.co.kr

## 광주 시내버스 절반 이상

# 2013년까지 저상버스 교체

### '교통약자 편의 조례안' 의결

오는 2013년까지 광주 시내버스의 절반 이상은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타고 내리기 쉬운 저상 버스로 바뀐다. 또 휠체어를 타고 오르내릴 수 있는 장애인용 특별 교통수단도 도입된다. 광주시의회는 3일 제 170회 정례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를 열고 이명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1

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다. 조례안은 오는 2013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교체키로 하고, 매년 일정비율을 바꾸도록 의무화했다. 광주시장에게 이를 위한 예산 확보 및 버스 정류장 및 보도, 도로 등의 정비의무도 부과했다.

조례는 또 연중 무휴로 하루 24시간 이용 가능한 장애인용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김지흥기자 dok2000@

## 광주시·전남도 작년 상반기 정부종합평가

# 9개 분야 대부분 '나' 등급 '저조'

광주시와 전남도가 2007년 상반기 정부종합평가 9개 부문에서 대부분 '나' 등급 이하의 저조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2007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평가대상 시책 9개 분야 가운데 유일하게 '안전 관리분야'에서만 '가' 등급을 받았을 뿐 나머지는 모두 '나' 등급 이하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 환경관리, 여성복지, 지

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관광, 중점과제 분야 등 7개 분야에서 '나' 등급을 받았고 일반행정 분야는 가장 낮은 '다' 등급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는 환경관리 부문에서만 '가' 등급을 받았고 일반행정, 보건복지, 여성복지, 지역개발, 중점과제 등 5개 분야에서 '나', 지역경제, 문화관광, 안전관리 등 3개 분야에서 '다'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대리점 모집' (Franchise Recruitment) for a business. Features images of various food items like bread, pastries, and drinks. Text includes '대리점 모집', '3인 3색', and 'SMC' logo.

Advertisement for '호남 최대!! 안마의자·홈시우나 전문매장 OPEN'. Features a large image of a massage chair. Text includes '호남 최대!!', '안마의자·홈시우나 전문매장', and '백만원대 안마의자'.